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10



Contents

※ 2025.12.25(목) 기준(대상 기간 : 2025.12.18.~2025.12.2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국표원,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2025.12.23) 1
- 청정열에너지법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야 공동 대표발의(2025.12.19) 1
- 김성회 의원, 녹색산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2025.12.19) 2
- 삼척시, 탄소중립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2025.12.24) 2
- 화성특례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심의·의결(2025.12.24) 2
- 흥북읍,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소로 탄소중립 실천(2025.12.24) 3
- 달서구, 대구시 에너지절약추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2025.12.24) 3
- 광주시, 탄소중립포인트로 시민 4만6천여 명에 8억7천만원 지급(2025.12.24) 4
- 김해시,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6~2030) 발표(2025.12.24) 4
- 세종시,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제작으로 탄소중립 실천(2025.12.23) 4
- 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공식 출범(2025.12.23) 5
- 전남도,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 달성(2025.12.23) 5
- 구미시, 경북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 최우수상 수상(2025.12.22) 6
- 서산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친환경 정책에 148억원 투입(2025.12.22) 6

- 청송군, 경북환경대상 2년 연속 우수상 수상(2025.12.22) 6
- 광명시, 2026년 예산 1조3471억원 확정…탄소중립에 집중 투자(2025.12.22) 7
- 청주시,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탄소중립·제도혁신 박차(2025.12.21) 7
- 당진시, 온맵시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2025.12.20) 8
- 거제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1528만원 지급(2025.12.20) 8
- 거창군, 관광·탄소중립·임업소득 아우르는 전방위 산림정책 추진(2025.12.20) 8
- 여수시, 탄소중립 추진기관 협력네트워크 출범(2025.12.18) 9
- 부산항만공사, 탄소중립 항만 구현 위한 기술협력 MOU 체결(2025.12.18) 9
- 부산 중구, 2025 탄소중립 실천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2025.12.18) 10
- 은평구, 2025 탄소중립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2025.12.18) 10

- **AI 분야** 11

- 국방부, 국방AI 총괄 차관보 신설 및 북한정책과 부활(2025.12.21) 11
- 한-UAE, 3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협력 본격화(2025.12.18) 11
- 산업부,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내년 2월 확정…제조 AI 전환 가속(2025.12.18) 11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2

- **탄소중립 분야** 12

- 환경산업기술원, 2026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3배 확대 공모(2025.12.19) 12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탄소중립·ESG 공로로 강서구청 기관표창 수상(2025.12.23) 12

- 문경교육지원청, 점촌초에서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시(2025.12.18)	12
▪ AI 분야 13	
- 인천공항 AI 허브 사업,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2025.12.23)	13
- 산업은행, AI·헬스케어·데이터센터 분야 국제투자협력 전문가 회의 개최(2025.12.23)	13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4	
▪ 탄소중립 분야 14	
- 해양에너지, 다회용기 제작 후원으로 ESG경영 실천(2025.12.23)	14
- 한일시멘트, 산림탄소흡수원 인증 획득…축구장 300개 넓이 임야 관리(2025.12.23)	14
- 신한은행,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2026 넷제로 챌린지X' 참여(2025.12.22)	15
- 에이치에너지, 기후에너지 학술대회서 B2C 재생에너지 플랫폼 발표(2025.12.22)	15
- 종암동 개운산마을, 국내 첫 목조아파트 조성 추진(2025.12.19)	16
- 국립공주대 RISE사업단, SDX 탄소감축인증센터와 탄소중립 전문인재 양성 협력(2025.12.18)	16
- 한국탄소중립농업협회, 현판식 개최 및 본격 활동 개시(2025.12.23)	16
-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 40.9%,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 체감(2025.12.22)	17
- 예장 통합 농촌선교센터,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농어촌교회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후원 (2025.12.19)	17
- 춘성중, 일회용품 줄이기·탄소중립 실천 환경캠페인 진행(2025.12.19)	18
-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경로당행복선생님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 최우수상 수상 (2025.12.18)	18

▪ AI 분야 19

- 삼성SDS, 국내 최초 오픈AI 공식 리셀러 파트너 계약 체결(2025.12.23) 19
- 유베이스 그룹, 한국정보통신과 AI 라우팅봇 솔루션 구축 협력(2025.12.24) 19
- 삼성생명, 생성형 AI 기반 'AI CX 글쓰기 시스템' 도입(2025.12.24) 20
- 하나금융그룹, AI 디지털혁신 중심 2026년 조직개편 단행(2025.12.23) 20
- 포스코DX, 美 휴머노이드 로봇업체 '페르소나AI'에 300만달러 투자(2025.12.23) 20
- 엔카닷컴, AI 기술로 중고차 거래 전 과정 혁신(2025.12.22) 21
- KB국민카드, AI 플랫폼 유료 구독 고객 대상 외화머니 페이백 이벤트(2025.12.22) 21
- 삼성전자, 졸업·입학 시즌 맞아 '갤럭시 AI 아카데미' 프로모션 진행(2025.12.22) 21
- KAI, 출자회사 간 기술 연대 강화 위한 'K-AI 패밀리 기술교류회' 개최(2025.12.19) 22
- 아이엘·솔트룩스, 피지컬 AI 데이터 주도권 확보 위한 전략적 협력(2025.12.18) 22
- 골드만삭스, 2026년 투자 테마로 'AI 옥석 가리기' 제시(2025.12.23) 22
- 구글, AI 전력 확보 위해 인프라 기업 '인터셉트' 7조원에 인수(2025.12.23) 23
- 올해 미국서 AI 사유로 일자리 5만4천여 개 감소(2025.12.22) 23
- 오픈AI, 10월 기준 컴퓨터 마진 68%로 수익성 대폭 개선(2025.12.22) 23
- 오라클, AI 거품 공포의 상징적 종목으로 부상(2025.12.22) 23
- 독일, AI 생성 여성 경찰관 이미지 악용한 온라인 사기 확산 경고(2025.12.22) 24
- 소프트뱅크, 오픈AI 투자 위해 ARM 주식담보대출 한도 대폭 상향(2025.12.21) 24
- 현경제연구원, AI와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경제 새 변수로 부상 분석(2025.12.21) 24
- 중국 무어 스레드, 엔비디아 대체 겨냥 차세대 AI 칩과 플랫폼 공개(2025.12.20) 25
- 영국 800만 명, AI로 크리스마스 카드 문구 작성 계획(2025.12.19) 25
- 페이커, 일론 머스크 AI와 LoL 대결 제안에 "이길 것" 자신감(2025.12.19) 25

- 오라클발 충격에 AI 관련주 급락, 마이크론 어닝서프라이즈로 반등(2025.12.18) 26
- 오라클발 악재에 코스피 4000선 하회, AI 수익성 우려 확산(2025.12.18) 26
- K콘텐츠산업, 내년 '골든타임'...AI·IP·애착자본이 핵심 키워드(2025.12.22) 26
- CBS노컷뉴스 'AI 기후위기' 기획보도, 제1회 기후보도상 수상(2025.12.19) 2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국표원,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함.- 이번 전략은 탄소배출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 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 제시.-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 순환경 표준화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
	<p>□ 청정열에너지법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야 공동 대표발의(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한정애·정희용 대표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제출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법안은 청정열을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 중심으로 정의하고,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 청정열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열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청정열 에너지 공급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을 반영한 청정열에너지 전환 지원, 관련 요금제 및 인센티브 마련,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항 등 정의로운 전환 요소도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 확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성희 의원, 녹색산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김성희 의원이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녹색산업 범위가 불분명해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 기후취약계층·지역 적응력 제고, 부문별 적응촉진 사업 등 '기후적응' 분야까지 범위 확대. - 5년마다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적응 목표와 이행 전략이 담긴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 강화 기대.
지자체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삼척시, 탄소중립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2025.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삼척시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지방정부 우수 사례로 평가. - 삼척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실행, 지자체·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문화 확산 등의 성과 인정. -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이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언급.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성특례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심의·의결(2025.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특례시가 화성동탄2인큐베이팅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최종안과 탄소중립지원센터 2025년 성과 평가 심의. - 적응대책은 '기후위기에 회복력 높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비전으로 건강·재난재해·농축산·물관리·해양수산·산림·생태계·산업·에너지·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육·홍보 및 협력·인프라 등 8개 부문 47개 추진 과제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31일까지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6년 2월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계획.
지자체	<p>□ 홍북읍,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소로 탄소중립 실천(2025.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홍성군 홍북읍이 읍내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소식을 개최하며 그간 전용 집하시설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 공동집하장 개소로 적치 공간 부족으로 원거리 이동해야 했던 농가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법 소각이나 매립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비닐 수거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 전망. 홍북읍새마을지도자회장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홍북읍 농촌 환경의 자정 능력 향상과 주민 의식 개선을 통해 환경을 중요시하는 문화 정착 다짐. <p>□ 달서구, 대구시 에너지절약추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2025.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달서구가 '2025년도 대구시 구·군 에너지절약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공공·민간 전반에 걸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구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 성과 인정. 달서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탄소중립 교육을 지속 추진해 주민 인식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2곳에 총 43.18kW 규모의 태양광 자가발전시설, 민간부문에서는 134곳에 총 565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이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위한 달서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광주시, 탄소중립포인트로 시민 4만6천여 명에 8억7천만원 지급(2025.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가 2025년 상반기 동안 에너지 사용과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총 8억7천여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완료.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4만4269가구에 약 7억4000만원,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시민 1822명에게 1억3000여만원 지원하였으며, 에너지 부문 가입률은 전체 가구의 56%로 전국 최고 수준 기록. - 올해 상반기 에너지 절감 실적 가구는 19만여 가구로 약 3만3553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69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에 해당하고, 광주시는 내년 자동차 부문 참여 차량을 5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지자체	<p>□ 김해시,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6~2030) 발표(2025.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시가 김해시청에서 열린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6~2030) 최종보고회에서 향후 5년간 환경교육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탄소중립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 발표. - 이번 계획은 환경교육 기반 강화, 학교 환경교육 전환,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담고 있으며, 김해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 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최종계획안을 확정해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교육도시 김해의 정체성 공고화 추진.
	<p>□ 세종시,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제작으로 탄소중립 실천(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가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우산 320개를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며, 올해 수거된 폐현수막 0.3t을 우산 제작에 재사용. - 이번 제작은 폐현수막 소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우산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마대자루, 친환경가방 등을 제작해 재활용율을 높이고 공공기관 대상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도 지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할 계획. <p>□ 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공식 출범(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제천시가 시청 청풍호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2년간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심의하는 제2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 선언. - 제2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기에서 마련된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계획 수립 중심에서 실행·점검 중심으로 기능 강화 및 실질적인 성과 창출 추진 예정. - 김창규 제천시장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기에서는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
	<p>□ 전남도,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 달성(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도가 2025년 처음 설정한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 목표를 달성하며, 인증 실적 284건에 5664ha로 전국 인증면적 1만8935ha의 33%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 기록. - 이는 지난해 인증면적 1660ha보다 약 3배인 240% 증가한 결과로, 전남은 연간 약 1만5397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인증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과 전국 최초 인증 확대 계획 수립·추진이 주요 성공 요인. - 친환경 벼 등 단지별 단체 신청 유도, 순회 설명회 운영, 인증 현장 평가 적극 대응, 전남도에 한해 인증 교육 5회 추가 실시 전의 등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구미시, 경북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 최우수상 수상(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가 경북도 주최 '2025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보고회'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한 단계 높은 평가로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성과 인정. - 구미시는 친환경 설·추석 명절 보내기, 기후변화주간, 환경의 날 등 주요 시기마다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캔·페트 자동수거장비 운영과 폐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병행하며,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가구 수 3만1429세대로 도내 1위 기록. - 구미시는 기후부 공모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최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 강화 추진.
지자체	<p>□ 서산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친환경 정책에 148억원 투입(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서산시가 올해 총 148억원을 투입해 무공해차 선도 도시 기반 구축과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 시책을 확대 추진하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주목. - 무공해차 선도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130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등 무공해차 850여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571대 조기 폐차 지원, 건설기계 32대 엔진 교체 등 대기질 개선에도 18억원 투입. - 시는 지난 4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산'을 비전으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31.5%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교통, 자원순환, 저탄소 농축업 등 45개 실천 사업 단계적 추진 방침.
	<p>□ 청송군, 경북환경대상 2년 연속 우수상 수상(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송군이 '2025년 경북환경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 - 청송군은 1차 평가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환경관리 실태,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 정부합동평가 등 주요 지표에서 상위 5개 시·군에 포함되었으며, 2차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에서는 청송사과축제에서의 다회용품 사용 도입과 공공기관 일회용품 감축 실천 활동으로 높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안내문과 그림 자료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 정책 추진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행정이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
지자체	<p>□ 광명시, 2026년 예산 1조3471억원 확정…탄소중립에 집중 투자(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광명시가 2026년도 예산을 1조3471억원으로 확정하며 전년 대비 18.8% 증가 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은 1조193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1조원 돌파. - 시는 기본사회, 탄소중립·정원도시, 자치분권, 민생경제 등 핵심 정책 분야에 2726억원을 투입하며, 특히 탄소중립·정원도시 분야에 1441억원을 배정해 탄소중립 정책, 도시숲길·정원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자원순환경제 구축 등 추진. - 박승원 시장은 중앙정부 국정과제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광명시가 지향하는 기본 사회와 지속가능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며 시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도시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 <p>□ 청주시,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탄소중립·제도혁신 박차(2025.12.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8기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과 제도혁신,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국 자체 중 처음으로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도입. - 청주시는 청원구 내덕동에 전국 최초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조성해 하루 최대 2만개의 식기 세척이 가능하며, 올해 무심천 푸드트럭축제, 청원생명축제 등에 다회용기 약 98만개를 공급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축. - 시는 환경부·스타벅스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청주시 내 스타벅스 28개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회수·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통해 2024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투명 페트병 140만533개, 캔 38만6035개를 회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당진시, 온맵시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2025.1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당진전통시장 어시장 앞에서 온(溫)맵시 캠페인을 진행하며, 따뜻한 옷차림으로 난방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 전달. - 온맵시 실천 방법으로 목도리 · 장갑 착용, 내복 착용으로 체온 유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창문 · 문틈 바람막이 설치, 산불 예방으로 탄소흡수원 보호, 긴 양말과 스타킹 착용 등이 제시. - 지속협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안내하고 저탄소 생활실천 서약서를 작성한 시민들에게 텔장갑을 배부하였으며, 현장에서는 통기타 공연도 펼쳐져 캠페인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조성.
지자체	<p>□ 거제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1528만원 지급(2025.1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시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 228명에게 총 152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12인승 이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도 참여 전 · 후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원까지 현금 지급하며, 올해 참여자 482명 중 228명이 감축 실적 달성. - 올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35t으로 국립산림과학원 표준 탄소흡수량 기준 소나무 약 25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며, 내년 2~3월에도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인센티브 혜택 기대.
	<p>□ 거창군, 관광 · 탄소중립 · 임업소득 아우르는 전방위 산림정책 추진(2025.1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고부가가치 임업소득 창출, 글로벌 산림관광 거점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형 산림 도시' 청사진 완성 추진. - 가북면 용암리 일원에 100ha 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해 향후 30년간 약 2만6000t의 이산화탄소 흡수 예상이며,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로 지방세입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 계획, 또한 '지속개화형 밀원숲' 77ha 규모 조성으로 양봉 농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소득 안정화 기여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은 북상면과 가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남부권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숲' 벨트 조성 중이며, '영호남 산마루 숲길 조성' 사업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24개 봉우리를 연결하는 총 236km 규모의 순환형 트레킹길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 	
<p>□ 여수시, 탄소중립 추진기관 협력네트워크 출범(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여수시가 디오션 거문도홀에서 '2025 여수시 탄소중립 협력네트워크 성과·전략 공유회'를 개최하며 지역 내 탄소중립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추진 성과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공식화. - 행사에는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탄소중립실천연대, 전남대학교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여수YMCA,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등 주요 기관과 협의체가 참여해 업무협약 체결. - 시는 COP33 유치 추진과 2026 UN 기후주간 개최 준비 등 글로벌 기후 행동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네트워크 출범을 계기로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행 역량 한층 강화 방침. <p>□ 부산항만공사, 탄소중립 항만 구현 위한 기술협력 MOU 체결(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가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친환경·에너지 자립항만 구현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항의 RE100 달성을 및 탄소중립 항만 구현 추진.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친환경·스마트 항만 건설 협력, 항만 분야 기술 지원 및 자문, 공동 연구 및 전문 인력 육성 협력,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등 추진 예정. -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항만산업 선도에 노력하겠다고 언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부산 중구, 2025 탄소중립 실천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중구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25 탄소중립 실천 사진 공모전'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수상작 선정. -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주제로 총 10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주제 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 진행. - 최우수상 수상작인 '한 장의 종이, 한 걸음의 변화'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상 3점 등 총 6점의 수상작 선정.
	<p>□ 은평구, 2025 탄소중립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은평구가 19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탄소중립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한 해 동안 구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해 온 감탄행동(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성과 공유 및 생활 속 실천 사례 확산 추진. - 성과공유회는 탄소중립 실천 유공 구민 표창, 동 탄소중립 활동 우수사례 발표, '감탄행동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탄소중립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며, 은평 마을 감탄사, 구민,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 참석 예정. -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행정이 아닌 구민과 마을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온 탄소중립 실천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도시 은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국방부, 국방AI 총괄 차관보 신설 및 북한정책과 부활(2025.12.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이 변경됐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1년 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게 되는 조직 개편 추진. - 국방부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명칭 변경 취지 설명. - 자원관리실 폐지와 함께 차관보 직위를 신설해 전력·정보화·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과 기능을 총괄하는 국방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p>□ 한-UAE, 3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협력 본격화(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총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후속조치 논의. - 기후부는 한국의 송전·전력망 기술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경험을 활용한 '저탄소 전력 기반시설' 통합 패키지 협력안을 UAE에 제안. -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적극 참여가 사업 성공에 중요함을 강조하며,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ESS 사업 참여 실적 부각.
	<p>□ 산업부,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내년 2월 확정…제조 AI 전환 가속(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 등 3대 정책 방향 제시. -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 AI팩토리 100개 추가, 2030년까지 500개 보급 목표 설정과 함께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 구축 및 AX 실증 산업단지 13곳 조성 계획 발표. - 한국형 IRA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검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 집중 투자, 2조원 규모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검토 등 파격 지원책 제시.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환경산업기술원, 2026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3배 확대 공모(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난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지난해에 비해 3배 규모로 편성해 공모 시작.- 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 활성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 영역에 포함된 22개 사업 79개 과제(약 1100억원 상당)를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공모.-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영역에서는 19개 과제에 351억원을 투입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며, 냉매의 회수·재생·파괴 기술 확보를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등 포함.
지방기관	<p>□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탄소중립·ESG 공로로 강서구청 기관표창 수상(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기관표창 수상.- 연구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왔으며, 광명시와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광명 에코페스타', '에코버스타요' 등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연구원은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최고 명예장과 표창패를 수상했으며, 광명시로부터 ESG 활성화 유공 표창, 10월에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보건 분야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인정.
	<p>□ 문경교육지원청, 점촌초에서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시(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경교육지원청이 2025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의 하나로 '문경 그린스쿨 어린이 환경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점촌초등학교에서 운영하며 학생 중심의 참여형 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경교육 본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차례로 진행된 수업에서는 '지구가 아파요'를 주제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 직업을 환경 보호와 연결 지어 생각. - 유진선 문경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환경 감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원해 친환경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언급.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천공항 AI 허브 사업,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적화하는 'AI혁신 허브'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자동 유찰 결정. - GPU(그래픽처리장치) 수급난 가중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권 대출 제한이 입찰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인천공항공사는 40㎿급 규모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빅테크, R&D센터, 대학 등이 입주하는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재공모 진행 방침.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은행, AI · 헬스케어 · 데이터센터 분야 국제투자협력 전문가 회의 개최(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기관과 산업협회 등 20여 개 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국제 투자협력 네트워크' 제5차 회의를 본점에서 개최. - 지분 투자 유치와 더불어 첨단기술 수출 · 현지 진출 등으로 다변화되는 투자협력 성과 공유 및 AI · 헬스케어 · 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의 한-UAE 협력 강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방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UAE와는 지난 11월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협력 모멘텀을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양에너지, 다회용기 제작 후원으로 ESG경영 실천(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해양에너지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다회용기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ESG경영 실천에 나서며 프로야구장의 일회용품 과다 사용 문제에 대응. - 해양에너지는 광주자활센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다회용기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며, 후원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만미기금과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마련. - 제작된 다회용기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식음매장에서 활용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세척·관리 등 운영 과정에는 자활사업단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 전망.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일시멘트, 산림탄소흡수원 인증 획득…축구장 300개 넓이 임야 관리(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시멘트가 산림청 주관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해 '산림탄소흡수원' 인증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기여 노력. -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일시멘트는 2055년까지 30년 동안 충북 단양군에 보유 중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축구장 300개 넓이(215ha)의 임야를 산림탄소흡수원으로 유지·관리하며, 예상되는 연간 탄소흡수량은 1327톤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 계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경 ESG 경영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민간기업	<p>□ 신한은행,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2026 넷제로 챌린지X' 참여(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은행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2026 '넷제로 챌린지X'에 2년 연속 참여 발표. -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 -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Tier3 기관으로 참여하여 신용보증기금·기술 보증기금과의 협약보증 상품을 활용해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평가수수료 감면, 대출금리 우대, ESG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녹색금융 지원 제공 계획. <p>□ 에이치에너지, 기후에너지 학술대회서 B2C 재생에너지 플랫폼 발표(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학술대회에서 재생에너지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전환하는 B2C 플랫폼 모델 발표. - 함일한 대표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건물 지붕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제시하고 신규 부지 개발 대신 기존 지붕과 산업단지 공간을 발전 자원으로 전환하는 '롱테일형 재생에너지 모델' 설명. - 에이치에너지는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 지붕 임대형 태양광 플랫폼 '솔라쉐어', 기업 대상 태양광 전기 직구 플랫폼 '솔라쉐어바로', 태양광 발전소 원격 운영·관리 플랫폼 '솔라온케어' 등을 통해 에너지 자본의 소유와 분배 구조 혁신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암동 개운산마을, 국내 첫 목조아파트 조성 추진(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성북구 종암동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국립산림과학원 주최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 심포지엄에 참여해 국내 첫 목조아파트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과 목조건축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 공유. -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북구 종암동 일원 509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총 1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전체 130가구 중 18가구를 목조 구조로 시공해 '탄소중립 아파트' 구현 계획. - 이원형 조합장은 목조아파트가 탄소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 주거 대안으로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대학교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립공주대 RISE사업단, SDX 탄소감축인증센터와 탄소중립 전문인재 양성 협력(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주대학교 RISE사업단이 천안캠퍼스에서 SDX탄소감축인증센터와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 사업 기획·운영에 합의. - 양 기관은 12월 6일과 7일 탄소중립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4개 과정을 개설하고 탄소감축평가관리사 2급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했으며, 12월 13일 2급 자격 검증 실시 및 수료식 진행으로 30여명 참여. - 김송자 사업단장은 2급 과정뿐만 아니라 1급 과정도 공동 개설할 계획이라며 1급 취득자가 탄소 프로파일러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 중립 우수 인재양성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탄소중립농업협회, 현판식 개최 및 본격 활동 개시(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한국탄소중립농업협회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갖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농업과 농촌 부문의 탄소 저감 활동에 관련된 연구와 기술 발굴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는 농식품의 저탄소 및 탄소중립 농업 인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참여, 농식품 전 주기에서 건강과 안전 먹거리 복지 확보, 저탄소 및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실현 등 3가지 비전 수립. - 세부 추진 전략으로 저탄소 및 탄소중립 인증 농식품 생산농가 확산 운동, 유통인 참여와 녹색 소비운동 가속화, 친환경 농자재 기업과 저에너지 농기계 기업 발표, 지자체와 마을별 탄소중립농업 지수 평가 발표, 한국탄소중립 농업 박람회 개최 추진 계획.
기타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 40.9%,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 체감(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15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대응 실태' 조사 결과, 40.9%가 탄소중립 대응을 추진·계획 중이거나 필요성을 체감 중인 것으로 조사. - 1차 협력사 71.4%, 2차 협력사 40.9%, 3차 협력사 25.5% 순으로 1~2차 벤더 중심으로 탄소중립 대응 필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 필요 이유로는 수출 시장 규제 대비 54.0%, 국내 시장 규제 대비 52.4% 등이 지목. - 탄소중립 전환 추진 시 어려움으로는 인증 취득·평가 비용 부담 57.1%, 전문 인력 부족 50.0%, 설비 구축 등 투자자금 부족 38.3%, 평가 지표 및 기준 정보 부족 30.5% 등을 꼽았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6.2%로 과반 초과.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장 통합 농촌선교센터,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농어촌교회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후원(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촌선교센터가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다시 농어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교회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을 후원하는 '농어촌교회 태양광 사업 후원예배'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농촌선교센터는 올해 초부터 농어촌교회 가운데 목회자 사례비 월 200만원 이하인 교회를 대상으로 후원교회 공모에 나섰으며, 늘푸른교회, 명곡교회, 유계 교회, 대신교회 등 4개 교회가 선정돼 3~6K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 - 농촌선교센터 이사장 전세광 목사는 빛은 길을 보이게 하고 따뜻하게 하며 치유의 역할을 한다며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자고 언급하였고, 센터는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농어촌교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속하며 해외 선교지까지 지원 범위 확대 계획.
기타	<p>□ 춘성중, 일회용품 줄이기 · 탄소중립 실천 환경캠페인 진행(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성중학교 학부모동아리 '율문천사'가 교내에서 열린 예맥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며 신북읍주민자치회와 K-water 소양강댐 육영사업의 연장선에서 기획·운영. - 행사에서는 분리수거 게임과 환경보호 퀴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운영 돼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탬프 놀이 체험 부스도 큰 호응. - 춘성중 홍명희 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해 환경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라며 학부모동아리가 중심이 돼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러한 실천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언급.
	<p>□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경로당행복선생님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 최우수상 수상(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가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로당행복선생님 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당 중심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 성과 인정. -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기초 인식 제고, 생활 속 실천 유도, 플라스틱 감축 실현, 사회 환원 및 확산의 4단계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높이고 실천의 지속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행복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환경 실천 활동과 함께 기억 회상, 의사소통, 문제 해결 활동을 병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자극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환경 보호와 노인복지를 동시에 실현한 우수 사례로 평가.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삼성SDS, 국내 최초 오픈AI 공식 리셀러 파트너 계약 체결(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SDS가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와 제휴해 기업용 챗GPT 솔루션을 국내 기업 고객에 공급하는 '리셀러 파트너' 계약 체결. - 지난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 이후 첫 공개 계약으로,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 컨설팅부터 구축·운영까지 전 과정 지원. - 삼성SDS는 차세대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부문에도 참여하며, 자사의 업종별 노하우와 오픈AI 기술력을 접목해 AI 사업 경쟁력 강화 계획. <p>□ 유베이스 그룹, 한국정보통신과 AI 라우팅봇 솔루션 구축 협력(2025.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베이스 그룹이 한국정보통신과 고객 상담 효율화를 위한 AI 라우팅봇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양사는 한국정보통신 대리점과 가맹점 상담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연중무휴 상시 상담 체계 마련 계획. - 한국정보통신 AI 라우팅봇 솔루션은 내년 1분기 중 상용화 예정이며, 핵심 문의 사항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장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삼성생명, 생성형 AI 기반 'AI CX 글쓰기 시스템' 도입(2025.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 'AI 고객 경험(CX) 글쓰기 시스템'을 사내에 도입. - 패브릭스(FabriX) AI에 삼성생명 'CX 글쓰기 가이드'를 결합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임직원이 몇 개의 키워드만 입력해도 고객 안내 문구 초안 작성 가능. -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달 방식에 따라 문장 길이와 구성을 자동 조정하고, 금융 용어를 쉬운 일상어로 순화하며 맞춤법·띄어쓰기 점검까지 자동 수행.
민간기업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나금융그룹, AI 디지털혁신 중심 2026년 조직개편 단행(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강화, AI 디지털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아 내년 전사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 단행. - 디지털금융과 ESG 경영, 소비자보호를 통합한 '신사업·미래가치부문' 신설과 함께 디지털자산과 AI 등 디지털금융 혁신 추진. - 하나은행은 기존 디지털혁신그룹을 'AI디지털혁신그룹'으로 개편하고 '디지털금융부'와 'AI데이터전략부' 신설로 조직 간 시너지 강화.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포스코DX, 美 휴머노이드 로봇업체 '페르소나AI'에 300만달러 투자(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DX가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업체 '페르소나 AI'에 200만달러 규모 투자를 하고, 포스코기술투자 펀드에서 100만달러를 추가해 그룹 차원 총 300만달러 투자. - 페르소나 AI는 NASA 소속 로봇공학자 출신 CEO와 피규어AI CTO 출신이 공동 창업한 기업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중후장대 산업현장에 특화된 로봇 개발. - 포스코DX는 이번 투자를 통해 산업현장의 고위험 수작업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협력과 피지컬 AI 확산 가속화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엔카닷컴, AI 기술로 중고차 거래 전 과정 혁신(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이 거래 서비스부터 상담, 차량 상태 진단 까지 AI가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엔드투엔드 구조 구축. - 자체 개발한 '모바일 진단 AI'가 차량 내·외부 사진만으로 주요 옵션과 등급을 99% 이상 정확도로 자동 인식하며, 차량 한 대 등록 시간을 하루에서 10~15분으로 단축. - 업계 최초로 동적 프롬프트 기반 '엔카밀고 AI 챗봇' 도입해 차량별 연식,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맞춤형 답변 제공.
	<p><input checked="" type="checkbox"/> KB국민카드, AI 플랫폼 유료 구독 고객 대상 외화머니 페이백 이벤트(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국민카드가 연말을 맞아 AI 플랫폼 유료 구독 고객의 해외 결제 부담 완화를 위한 외화머니 5달러 페이백 이벤트 진행. - 이벤트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월 누적 5달러 이상 해외 유료 구독 결제 시 혜택 제공으로 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 - 지급된 외화머니는 KB Pay 앱의 '자산 > 무료환전'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혜택은 2026년 2월 중 지급 예정.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삼성전자, 졸업·입학 시즌 맞아 '갤럭시 AI 아카데미' 프로모션 진행(2025.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갤럭시탭S11 시리즈, 갤럭시북5 프로, 갤럭시워치8 시리즈 등 최신 갤럭시 AI 탑재 제품 대상 프로모션 진행. - 정품 액세서리 최대 50% 할인, 삼성케어플러스 3개월 이용권 증정,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 비용 50%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갤럭시탭 품질보증기간을 국내 최초로 2년으로 연장하며, 국내 시판 태블릿 브랜드 중 유일한 2년 보증 제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input checked="" type="checkbox"/> KAI, 출자회사 간 기술 연대 강화 위한 'K-AI 패밀리 기술교류회' 개최(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대전 디브레인 사옥에서 출자회사 간 기술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3회 K-AI 패밀리 기술교류회' 개최. - 미래 공중전투체계 개발 청사진 공유와 함께 요소 기술별 협력 방안 및 미래 무인기·우주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코난테크놀로지의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방안, 디브레인의 군집드론 개발 방향성, 편진의 AI전투참모(KWM) 전투실험사례 등 AI 기반 기술 발표.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이엘·솔트룩스, 피지컬 AI 데이터 주도권 확보 위한 전략적 협력(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스택 미래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아이엘이 국내 대표 AI 기업 솔트룩스와 휴머노이드 및 지능형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데이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MOU 체결. - 아이엘은 로봇 플랫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과 현장 운용을 담당하고, 솔트룩스는 생성되는 데이터 기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학습 담당. - '로봇 대수 증가 → 데이터 축적 → AI 성능 고도화 → 플랫폼 가치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설계로 장기적 네트워크 효과를 내재한 플랫폼형 협력 모델 구축.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해외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골드만삭스, 2026년 투자 테마로 'AI 육석 가리기' 제시(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드만삭스가 내년 핵심 투자 테마로 AI 육석 가리기, 미국 외 글로벌 주식 분산 투자 등 5가지 제시하며 무작정 AI 주식 비중 확대 경계. - AI만 불으면 모든 게 오르던 무지성 상승 장세에서 실제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선별하는 종목 선별이 핵심인 국면으로 전환 분석. - 내년에는 매그니피센트 7(M7) 중심의 기술주 주도권이 약해지고 다른 섹터로 랠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월가 공통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구글, AI 전력 확보 위해 인프라 기업 '인터섹트' 7조원에 인수(202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기업 '인터섹트' 지분 100%를 현금 47억5000만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 체결. -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센터 확장을 가속하기 위한 승부수로, 인터섹트 전문 인력 흡수와 수 기가와트(GW) 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확보. - 인프라 기업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무탄소 에너지(CFE) 확보 전략 일환.
	<p>□ 올해 미국서 AI 사유로 일자리 5만4천여 개 감소(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컨설팅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줄어든 일자리 117만여 개 중 AI가 사유인 일자리는 5만4천694개로 집계. - 세일즈포스는 지난 9월 AI 도입으로 고객 지원 인력 약 4천 명을 감원했으며, IBM은 AI 업무도우미 활용으로 인사 업무 인력 수백명 감축. - 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일자리 대체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
	<p>□ 오픈AI, 10월 기준 컴퓨터 마진 68%로 수익성 대폭 개선(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AI의 '컴퓨트 마진'이 올해 10월 기준 68%로 작년 12월(52%)보다 16%포인트, 작년 1월(35%) 대비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 - 컴퓨터 마진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유료 서비스 구동 전산 비용을 제외한 둑으로, AI 챗봇 기업의 수익 효율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 다만 오픈AI는 수억명의 무료 챗GPT 사용자 전산 비용까지 충당해야 해 소프트웨어 상장기업들의 평균치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p>□ 오라클, AI 거품 공포의 상징적 종목으로 부상(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라클이 올해 1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후 주가 급등했으나, 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함께 9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하며 극심한 변동성 기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만 약 26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총부채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240억달러로 늘어나고, CDS 프리미엄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오픈AI와의 잔여이행의무(RPO) 금액이 최소 3000억달러에 이르는 등 대규모 계약 리스크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
해외	<p>□ 독일, AI 생성 여성 경찰관 이미지 악용한 온라인 사기 확산 경고(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함부르크 경찰이 AI로 생성된 여성 경찰관 이미지를 악용해 남성 이용자들을 유료 성인 사이트로 유도하는 온라인 사기 확산에 대해 공식 경고 발표. - 실제 경찰관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여성 모습을 AI로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며, 실제 인물인지 AI 이미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 경찰은 “독일 경찰은 개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계정 발견 시 즉시 신고 요청.
	<p>□ 소프트뱅크, 오픈AI 투자 위해 ARM 주식담보대출 한도 대폭 상향(2025.12.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AI에 올해 중 300억달러 이상 투자를 약속한 소프트뱅크그룹이 ARM 지분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 한도를 65억달러 추가해 총 115억달러 대출 가능. -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58억3000만달러에 매각한 데 이어 디디글로벌 보유 지분 일부 현금화까지 검토하며 자금 마련에 총력. - 손정의 회장은 “AI가 거품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며 AI 거품론을 반박하고, 10년 안에 AI가 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p>□ 현경제연구원, AI와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경제 새 변수로 부상 분석(2025.12.21)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경제연구원이 '2026년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 진단. - AI를 단기 과열과 거품 논란이 존재하지만 제조·금융·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실질적 성장 동력으로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산시장도 암호화폐 중심 투기적 시장에서 실물·금융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 분석. <p>□ 중국 무어 스레드, 엔비디아 대체 겨냥 차세대 AI 칩과 플랫폼 공개(2025.1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무어 스레드가 IPO 흥행 직후 엔비디아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와 함께 차세대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공개. - 새 GPU 아키텍처 '화강(Huagang)'을 통해 연산 밀도 50% 향상, 에너지 효율 10배 개선 주장과 함께 엔비디아의 호퍼, 블랙웰 제품군과 경쟁 포지션 지향. - 2026년부터 양산 예정인 신기술로 AI 학습용 10만개 이상 칩 연결 클러스터 구성을 목표로 하며, 독자 컴퓨팅 플랫폼 'MUSA'를 엔비디아 CUDA와 동등 수준으로 포지셔닝.
	<p>□ 영국 800만 명, AI로 크리스마스 카드 문구 작성 계획(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로열메일 조사에 따르면 올해 영국 성인 약 800만 명이 AI로 크리스마스 카드 문구를 작성할 계획이며, 18~34살 젊은 층의 70%가 이미 AI 적극 활용. -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AI로 일부 인사를 작성할 확률이 67% 높게 나타나 감성적 문장 창작 부담감을 기술로 극복하려는 경향 반영. - 55살 이상 연령대의 90%는 받은 카드가 AI로 작성됐는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세대 간 인식 차이 확인. <p>□ 페이커, 일론 머스크 AI와 LoL 대결 제안에 "이길 것" 자신감(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스포츠 아이콘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기자간담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AI 모델 '그록5'와 LoL 최강 팀 맞대결 제안에 "내년에 대결한다면 저희가 이길 것" 자신감 표명. - T1과 4년간 장기 재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프로게이머로서 아직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향후 4년간 더 발전하겠다는 포부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출연 등 대외 활동에 대해 “프로게이머가 게임만 잘해서 되는 시대는 아니다”라며 경기력 유지와 게임문화 홍보 활동 병행 소신 밝힘.
	<p>□ 오라클발 충격에 AI 관련주 급락, 마이크론 어닝서프라이즈로 반등(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핵심 투자자 블루아울캐피털 투자 철회 소식에 AI 관련주 일제 급락으로 나스닥지수 1.81% 하락 마감. - 엔비디아(-3.81%), 브로드컴(-4.48%) 등 반도체 기업과 원전·전력망 기업도 동반 하락하며 AI 인프라 투자 불확실성 부각. - 장 마감 후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 발표하자 시간외 거래에서 8.08% 급등하며 반도체 관련주 반등.
	<p>□ 오라클발 악재에 코스피 4000선 하회, AI 수익성 우려 확산(2025.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오라클발 AI 인프라 투자 불확실성 영향으로 코스피가 전일 대비 1.53% 하락한 3994.51에 마감하며 4000선 이탈. -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69억원, 1005억원 동반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만 4234억원어치 순매수로 지수 하단 방어. - 이미 기대가 반영된 호재보다 예상치 못한 악재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AI 관련 투자심리 위축 분석.
기타	<p>□ K콘텐츠산업, 내년 '골든타임'…AI·IP·애착자본이 핵심 키워드(2025.1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넥스트 K 2026' 행사에서 내년이 K콘텐츠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AI 대전환 대응 및 IP 활용 다각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 - 올 상반기 콘텐츠산업 사업체의 생성형 AI 활용률이 20%에 도달하며 혁신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임계점 진입, 방송·영상 산업은 6개월 만에 3%에서 30% 돌파. - IP 거래 매출이 전체의 29.3%에 달하며 IP가 단발성 흥행 자산이 아닌 장기적으로 관리·확장되는 산업 자산으로 자리매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input checked="" type="checkbox"/> CBS노컷뉴스 'AI 기후위기' 기획보도, 제1회 기후보도상 수상(2025.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노컷뉴스의 'AI 패러독스:편리함 중독, 빨라진 기후위기' 기획보도가 제1회 기후보도상 중앙언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 - AI를 산업·기술 혁신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기후위기 맥락에서 재해석한 점과 최신 연구 자료의 한계까지 겸중한 점이 높은 평가. - 기술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AI와 기후위기를 연결하는 책임 있는 저널리즘적 접근을 보여줬다는 심사평.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